

'겨울 가뭄 피해 최소화'

박병홍 농진청장, 기술지원 추진상황 점검회의 주제

농촌진흥청 박병홍 청장은 가뭄에 따른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원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21일 주재했다.
그동안 농진청은 겨울철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노지채소·백류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기술지원단을 파견해 예방 활동을 추진해왔다. 이에 현장기술지원단(3개반 30명)은 지난 15일부터 노지에서 재배 중인 마늘·양파, 보리·밀 등 월동작물의 생육상황을 파악하고, 가뭄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기술지원을 펼치고 있다.
또한 생육단계별 거름주기와 병해충 방제 등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사전 피해예방 중심의 기술지원을 실시하며,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역담당관'을 활용한 현장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기상청의



농촌진흥청 박병홍 청장은 가뭄에 따른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원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21일 주재했다.

대될 것으로 보고 지역별·작물별로 가뭄대책 기술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가뭄으로 인한 작물 피해 최소화 방안으로 노지채소 재배지에서는 토양수분증발 억제제를 위해 땅 위에 자른 볏짚 또는 왕겨, 부직포 등을 깔아주고, 작물이 마르거나 생육이 좋지 않을 경우 요소액 0.3%를 준다. 가뭄이 심한 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한 급수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 박 청장은 지역별 가뭄 현황과 농작물 생육상황 등을 보고 받고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 간 협업을 통한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작물별 기술 지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줄 것'이라며 "가뭄이 심하면 작물 생육 부진뿐만 아니라, 각종 병해충 발생도 많으므로 작물 피해 예방과 병해충 방제 등 동시에 고려해 기술 지도를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대희 기자

제일건설 '남원2차 오투그린데 디아트' 실수요자 몰려 청약·대출 등 조건 까다롭지 않아

'첫 신' 퍼스트시티와 브랜드 타운 형성 예정

최근 청약과 대출 등 각종 규제가 덜한 비규제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는 이 지역의 경우 청약 문턱이 낮고 전매제한이나 대출 등 규제가 덜해 일어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비규제지역은 청약 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이 넘고 만 19세 이상이면 세대원 및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또 재당첨 제한이 없어 기존 주택 당첨 이력도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혀, 전매제한, 대출 등에 대한 규제도 비교적 적은 편이다. 비규제지역 분양 단지는 6개월 뒤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도 주목된다.
지난 2020년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대부분 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준을 6개월에서 소규모 이종 등기 때까지로 강화하면서 전매제한 기간이 짧은 신규 단지의 희소성이 부각되고 있다. 여기에 담보인정비율(LTV)이 최대 70%로 높아 자금 마련도 비교적 쉽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지역은 청약, 대출 등의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실수요자가 부담 없이 진입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며 "남원 등 지방 주요 비규제지역에는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까지 몰리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남원시 신성동 116-1번지 일원(경본주택/양정동 150-1)에서는 '남원2차 오투그린데



제일건설 '남원2차 오투그린데 디아트' 조감도

디아트'가 분양 중으로, 지하2층~지상15층으로 전용면적 59㎡ 66㎡, 84㎡A·B, 95㎡, 119㎡, 138㎡로 구성된 총 226가구 규모이며, 제일건설이 남원시에 처음으로 선보였던 '남원 오투그린데 퍼스트시티'와 함께 브랜드 타운을 형성할 예정이다.
현재 남원지역 중대형 아파트의 희소 가치가 높으며 특히 제일건설의 남원 오투그린데 퍼스트시티의 경우 프리미엄도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세대는 주방이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는 '히든주방' 설계를 도입해 주방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관에서 주방으로 바로 연결되는 통로인 듀얼웨이 문 설계를 적용, 수유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일부 저층 세대에는 테라스 특화 설계를 적용해 취미 공간이나 홀카페로 활용할 수 있다.
대규모 브랜드 단지인 만큼 편의

시설도 잘 갖춰, 초등생을 위한 키즈 클럽, 중·고등 대학생을 위한 스터디카페, 어른들의 여가활동이 가능한 시네마룸, 실내골프연습장, 멀티 피트니스센터 등 고품격 커뮤니티 시설이 단지 내에 들어설 예정이다.
입지도 우수하다. KTX남원역 역세권 단지인 데다 북남원IC, 24번 국도 등을 이용하기 쉬운 교통여건이 좋다. 이 일대는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 예정에 있어 향후 대규모 주택단지로 조성될 전망이다. 서문로~남문로 확장, 신성대로 등 도심 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다. 광안루원, 춘향테마파크, 금암가족생태공원 등이 가까이 있고 근거리에 전통시장인 춘향골 공설시장이 있어 생활이 편리하다.
남원시가 개발하는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지역과 남원관광지 RE-PUS사업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 직접적인 수혜도 기대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본점 1층에 위치한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국내 최초 금융에듀테인먼트인 'JB 플랫폼(PLATFORM)'에서 해남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초청해 체험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디지털 공간 체험, 소외계층 아동들과 함께 즐겨요

전북은행, 'JB 플랫폼' 서 해남지역아동센터 아동 초청 체험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본점 1층에 위치한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국내 최초 금융에듀테인먼트인 'JB 플랫폼(PLATFORM)'에서 해남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초청해 체험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북은행은 국내 은행권에서 최초로 교육과 엔터테인먼트를 결합시킨 '금융에듀테인먼트'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청소년들에게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금융관련 정보들을 놀이와 결합시켜 재미와 정보를 동시에 전달하는 JB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양한 금융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해남지역아동

센터 아동 13명은 제이비 핀타지, 체크인,뱅크플랫폼 제이비뱅크 앱플랫폼, 파이낸스 큐브, 글로벌 커리시매, 메타버스 월드 마스터 홈, 제이비 굿즈 스토어, 도네이션 트리 등을 체험했다.
한 참여아동은 "금융교육이라고 해서 지루한 강의를 듣거나, 다른 디지털 체험관처럼 보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키오스크와 큐브를 통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어 좋았어요"며 "특히 금융성향 테스트를 통해 내가 선호하는 금융상품을 알게 되어 신기하고 재미 있었다"고 말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방학을 이용해 소외계층 아동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체험을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기관 또는 학교 등과 협력해 금융교육으로부터 소외된 학생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JB 플랫폼의 지속 운영을 통해 따뜻한 금융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JB 플랫폼은 지난 1월 25일부터 현재까지 지역아동센터 및 보육원, 그룹홈 등 소외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체험관을 오픈해 운영 중이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1일 2회, 1팀당 15명씩 운영되며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신청 가능하다.
기타 체험에 관한 자세한 안내나 이용을 원하는 학교 및 단체는 JB 플랫폼 홈페이지(jbplatform.jbba.co.kr)와 전북은행 사회공헌부 (063-250-7465)로 문의하면 된다.

/최대희 기자

LH전북본부 '중대재해 제로화 선언'

LH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안창진)는 지난 17일 LH 임직원 및 현장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한 건설현장 및 주거환경 조성 의지를 다지는 '중대재해 ZERO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선언식은 정부정책인 건설현장 사망재해 절반이상 줄이기 위해 적극 동참하고 LH CEO의 '안전 최우선' 가치 실천 등 강력한 안전 경영방침 선포를 위한 선언식과 재난안전 예방 교육으로 진행됐다.
또한 LH 전북본부는 건설현장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해 본부장 직속 안전담당조직 구성 및 인력 확충으로 안전관리가 미흡한 현장 집중 점검 등 밀착 건설관리를 추진한다.



아울러 획기적인 안전사고 감축을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를 확대 운영하는 등 안전시스템(안전통합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안전보건의식 고취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문화제'도 개최할 계획이다.
안창진 본부장은 "정부 안전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재해 제로화를 선도하는 LH가 되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최대희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경제사업 활성화 새 도약 준비 중

북전주농협, 이우광 조합장 취임 아래 매년 10% 이상 성장

북전주농협(조합장 이우광·사진)이 경제사업 활성화를 토대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21일 북전주농협에 따르면 이우광 조합장 취임 이래 각종 사업이 매년 10%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당기손익도 지난해 말 17억4000만원의 실적을 올렸으며, 이에 따라 약 15억원의 각종 배당을 실시하고, 2021년도 교육지원사업비 14억3,400만원원을 지원되는 등 30억원 가까이 조합원에게 환원하는 성과를 올렸다.
농협의 규모 또한 2021년 말 기준 조합원수 1,978명, 총 자산 4,316억원, 자기자본 312억원, 예수금 3,709억원, 대출금 3,294억원 등으로 큰 성장을 이루었다.
또한 취임 후 2년 9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영농자재백화점 개점, 배저운저장고 신축, 딸기·포도 GAP 공동선별장 신축, 경제사업장 리모델링, 주요소 신구 개점 등 굵직한 경제사업 추진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개점한 농협 셀프 우유소는 주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개점 두 달 만에 20여 명의 매출을 달성했고, 1월 한 달간 유류매입량도 88만5,000톤으로 신성 우유소임에도 불구하고 전북지역 농협우유소 중 가장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다.
이우광 조합장은 "이처럼 북전주농협이 경제사업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는 것은 여러가지는 금융환경 속에서 농협의 새로운 사업성장 동력을 찾고 조합원의 소득향상과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는 등 농협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삼 기자

면접비부터 의상까지 지원

전북일자리센터, '취준 꾸러미' 사업 진행

전북도도와 전북일자리센터는 국내 미취업 구직자들의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구직난이 지속됨에 따라 국내 미취업 구직자들의 면접 등 구직활동에 대한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일자리센터에 등록된 구직자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가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취업되기까지 면접 등 평균 5회 정도 구직활동을 하기 때문에 면접의 비용과 교통비 등 부가적인 비용까지 많은 부담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시절에 진입하지 못하는 도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북일자리센터는 국내 구직자들의 의견을 청취해 올해부터 '취준 꾸러미' 사업을 추진해 구직활동에 대한 비용 전반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전북일자리센터에 구직등록을 마치고 구직활동 시 비용이

발생한 경우 도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지원내용은 4개 분야로 '면접비', '면접의상', '면접준비', '면접의상 대여'로 구성되며, 꾸러미 형태를 지원할 계획이다.
각 분야별 지원금액은 각각 ▲면접비 3만원(인당 2회) ▲면접의상 2만원(인당 1회) ▲면접준비 5만원(인당 1회) ▲면접의상 대여료 5만원(인당 2회) 지원 된다. 한 사람당 최대 23만원 상당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접수는 전북도일자리센터 홈페이지(www.1577-0365.or.kr) 또는 전북일자리센터(1577-0365)를 방문 통해 3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전북도일자리센터 이현용 센터장은 "미취업자들의 평균 구직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구직활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이로 인해 고용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며 "형실적이고 실질적인 수요에 대응하는 지원정책을 강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대희 기자

신협, 지난해 당기순이익 5156억원 시현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이하 신협)는 지난해 전국 신협이 5,15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며 역대 최대 이익을 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34.6% 증가한 수치로, 전국 신협은 20년 연속 흑자경영을 달성했다.
주요 재무현황에서도 고른 성과를 보였다. 전국 87개 신협의 총자산은 1244조원을 달성하며 전년 대비 12.1% 증가했으며, 이용자 수는 1,477만명(조합원 669만명)을 돌파했다. 여신은 988조 원, 수신은 1117조원으로 작년 말 대비 여신 18.9%, 수신 12.3% 성장했다.
또한 2021년 말 신협의 순자본비율은 전년 대비 0.35%p 증가로 역대 최고 수준인 7.05%를 달성해 조합 경영의 건전성이 높아졌다. 이는 신규 조합원의 꾸준한 유입에 따른 출자금 확대 및 당기순이익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 87개 조합의 평균 자산 금액은 1425억원으로 전년 말 평균 자산 금액 대비 163억원이 증가했다. 자산규모가 1,500억원 이상인 조합 수는 전년 말 대비 28조합 늘었고 300억원 미만 조합은 16조합 감소하면서 소형 조합과 대형조합 모두 안정적인 성장을 보였다.
한편 신협중앙회도 2021년, 178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는 등 최근 8년간 연속해서 흑자를 달성하며 BIS 비율 10.51%, 잉여금 1조원 이상을 보유한 초우량 금융협동조합으로 거듭났다.

/최대희 기자